

행복한 부부를 위한 투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다.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기술이 있는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러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흘러나온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들이 이룬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요3:16 요일4:).

효과적으로 사랑을 공급받고 또 공급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우자(상대)가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익혀야) 사용해야 한다.**(중국어와 영어가 다르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 영어권에서 중국어로 제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듯, 내 방식으로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면 상대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원 가정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말과 행동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상대의 원 가정을 이해하려는, 또한 원 가정에서 배운言行,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서로가 사랑의 대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에 자신의 아픔이나 약점들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며 좋은 것만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연애초기 결혼초기에(가능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 함으로서 상대에게 나를 알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love이란 한 목적을 향한 고백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즉 다양 다수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할 때에도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결 같이 적용될 수 있는 love 이어야한다.

많은 청춘남녀들이 결혼이 목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서로에게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는다. 연애시절에는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 욕구를 채우려한다. 배우자로부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만 불평 원망한다.

男 → 結婚까지

女 → 結婚후에는 행복하게 해 줄거야!

결혼한 후 목적은? → 집, 자녀, 노년에 여행, 그 외의 목적이 있는가?

emotional tank [감정의 그릇]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감정의 탱크가 있다. 感情의 그릇에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는 정상적인 발육과 성장이 있지만 이 그릇이 비어 있게 되면 그릇 행하게 된다. 마치 빈 배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지만 보물을 가득 실은 배는 안정감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릇 행하는 데는 emotional tank를 채우려는 인간 내면의 갈망으로 부터 비롯된다. 인간의 심연에는 누군가?(절대자)에 의해 사랑을 받으며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결혼, 이성을 찾는 이유도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도 사랑을 대신 할 수 없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것도 높은 지위나 절대적 권력을 가지려는 것도 그것으로 love tank를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emotional tank가 채워지지 않음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결혼생활이란 상대의 emotional tank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를 채워주는 것이다. 상대를 채워주려 하지 않고 나만을 채우려하는데서 갈등의 원인이 생기게 된다. love tank를 채워주는(공급받는) 샘이(원인 공급자) 있어야 한다. 이 샘은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은 신기한 샘물이다.

[1] 인정하는 말

들어가는 말 - 矛盾) 어떤 부인이 '남편은 종일 자신을 무시하면서도 잠자리는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의 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은 감정이 먼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사랑의 감정(환상)이 사라지고 각자의 욕망이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강하게 표출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진실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으며 매래 지향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일 년에 보약을 몇 첩해주는가? 돈 안들이고 보약보다 더 힘이 나게 하는 약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구약 신약! 격려와 칭찬 인정해주는 말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과 행동이 그것이다.

☛ 안한 것은 티가 나서 지적을 받지만 열심히 한 것은 티가 나지 않는다. 집안일을 칭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한국문화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입어야 에너지가 생긴다.

[2]스킨쉽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해야 알 수 있다.(민14:1-10)(요3:16)

♡축복기도

♡허깅

♡언어

표현이란 또한 믿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을 수반해야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솟아야 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나를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 어떤가?

[3]함께하는 것

-부부세미나에온 목사님과 사모님의 얘기다. 오늘 집에 가면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말고 무조건 경청하라는 강사의 말에 힘이 난 사모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안일을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강사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주리라 생각했다.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응 그랬어! 그랬구나! 응! 응! 계속 반응을 해주더라는 것이다. 이윽고 정리를 마친 사모님이 차를 타가지고 남편서재에 들어가서 '여보 있잖아 아까 내가 했던 말 어떻게 생각해' 남편 목사의 말 '아까 뭐라고 했는데' 설교 준비하느라 건성으로 대답만 응! 응! 그랬던 것이다.*^^-

1. **함께하는 것이란!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 뿐만 아니라 그에게 눈과 귀와 가슴을 대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TV 보면서, 소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관경을 주목해서 보면 데이트하는 남녀와 결혼한 부부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데이트하는 남녀는 서로 마주보면서 진지하게 대화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그저 같이 앉아 있을 뿐이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 인테리어에, 음식이 나오면 먹기에 바쁘다. 그 저 외식하러 왔을 뿐이다.

2. **함께하는 것이란 연대감(Togetherness)을 말한다.** - 활동은 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인 것이다. 외식을 하면서 이곳 저곳에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감정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아야 한다.

3. **함께 하는 것이란 감정과 접촉하는 것이다.** -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은 상대가 말하고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에 아무런 해석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들어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 말하는 것은 고통을 알아달라는 의미이며, 또한 그가 고민하는 것이나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며 함께해주는 것이다.

①시선을 고정시키라.

②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지 말라.

③상대의 감정에 주의를 기우려라.

- ④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라.
- 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막지 말라. 대화가 다툼으로 발전하는 원인이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⑥ 자신을 잘 표현하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것이란 공감하며 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잘 표현하는 성을 의미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려면 메모하라.
- ⑦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당신은 배자와 무엇을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 ⑧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것이다. 아이를 출산할 때, 위기의 순간에,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축하해줄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랑은 반드시 주는 것을 수반한다.

-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의 표현은 선물이다. 선물이란 감사의 표현이나 기억한다는 상징이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품지 말고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선물로서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물은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선물이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만일 배우자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 받는 것이라면 당신은 선물을 능숙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배우자나 상대가 받으면서 기뻐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것을 선물하라. 예) 러시아 선교사가 나에게 이런 경험을 얘기했다. 어떤 가정에 집들이가 있어서 무엇을 사가지고 갈까 그러다가 오래 쓸 수 있는 아이의 장난감을 사았는데 축하하러 온 모든 러시아인이 꽃을 들고 왔더라는 것이다. 다 돌아간 후에 집주인에게 하루가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꽃과 아이가 오래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중 어느 것이 좋습니까?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꽃은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가 좋잖아요.

배우자에게 가장 큰(위대한) 선물은 무엇일까? 손에 쥐어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존재의 선물** 자신의 존재가 위대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 존재가 선물이 되려면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고, **향기**가 나야 하고, **내용**이 있어야 하고, **값**이 있어야 한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랑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아끼거나 꺼리지 말라. 사랑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 투자이다.

[5] 사랑의 언어 봉사와 헌신이다.

봉사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갈5:13)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

게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나의 아내는 안마해주면 사랑받는 다고 느낀다.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사례비나 감사료를 손에 쥐어주면 너무나 좋아한다. 또한 네 명의 동생을 부양한 소녀가장으로 살아왔기에 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사랑받는 다고 느낀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을 제시해주지만 요구하는 것은 흘러나오는 사랑도 막아버린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며 표현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 사랑은 선택이지 강요가 아니다. 고정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6]전문기관을 찾아가서 배우라.

책을 읽거나,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부부학교, 내적치유세미나, 행복한 부부 만들기, 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디자인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라. 내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 마음열고 받아 들여라.

[7]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라.

- ①상대가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 받는 반대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 ②상대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 ③상대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상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 ④정죄하거나 무시하는 말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일 수 있다.
- ⑤상대가 도와주지 않는 것에 상처를 받는다면 '봉사'가 사랑의 언어 일 수 있다.
- ⑥기념일이나 행사 때 선물이 없어서 상처가 된다면 '선물'이 사랑의 언어 일 수 있다.
- ⑦함께 놀아주지 않고 여행하지 않으며 산책하지 않는다고 힘들어 한다면 '함께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다.
- ⑧상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요청' 했었는가?
- ⑨상대가 무엇을 가장 많이 말했는가? '잔소리로 들렸던 말들'이 상대의 사랑의 언어 일 수 있다.
- ⑩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것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언어 일 수도 있다.
- ⑪다른 하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배우자상은 무엇인가? 정말 완벽한

배우자를 기대한다면 어떤 형의 사람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배우자상이**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것이다.

☛ 고부간의 갈등에 남편의 역할이 미묘하다. 이때 대부분 남편들은 어머니 편을 들게 된다. 해결점은 어머니가 내 인생의 2순위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주면 갈등의 문제가 풀린다.